제주 문화시설 최다… 전문 인력 수는 하위권

2020 문화기반시설 총람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학예직·사서직 평균 이하
생활문화센터는 인력 전무
3개 문예회관 유료 관객률
6.9%로 전국서 가장 낮아

제주 지역 박물관·미술관이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예직 등 전문 인력 배치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펴낸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람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이 들어있다. 수록된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20년 1월 1일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은 3017개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제주는 공공도서관 22개, 박물관 65개, 미술관 22개, 생활문화센터 5개, 문예회관 3개, 지방문화원 2개, 문화의 집 19개에 이른다.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시설 수는 제주가 205개로 전국 최고 수치를 보였고 강원 150개, 전남 118개로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더 많이 분포됐다.

제주는 백만 명당 시설 수가 박물관(96.9개), 미술관(32.8개)에서 특히 높아 전국 1위였다. 하지만 시설의 전문성을 높일 학예직원 수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박물관의 경우 1개관당 학예직원 수가 전국 평균 3.45명인데 비해 제주는 1.52명에 그쳤다. 제주는 1개관당 평균 소장 자료가 2만3897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이를 조사, 연구, 교육, 전시 등으로 보여줄 학예직 배치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미술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제주 공·사립미술관의 학예직원은 시설당 평균 2명으로 전국 평균 3.67명에 못 미쳤다.

전문직원 수 부족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공도서관 시·도별 평균 지표를 보면 제주는 1개관당 평균 직원 수가 9.9명으로 전국 평균(8.4명)을 상회했지만 사서직원 수는 3.5명으로 전국 평균(4.5명)에 닿지 못했다. 제주 지역의 3개 문예회관 역시 전문직원 수가 1개관당 5명으로 전국 평균(6.15명) 이하였다. 이들 문예회관은 공연일수(214일), 전시일수(164일)가 전국 평균보다 많았는데 유료 관객률은 6.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26.1%)에 턱없이 모자란 것은 물론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공연을 중심으로 관람 문화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의 집은 제주가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했지만 1개관당 평균 운영 인력 수는 1.9명으로 전국 평균(2.6명)보다 적었다. 2020년부터 통계에 포함된 생활문화센터는 제주 지역 5곳의 운영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시·도의 생활문화센터 배치 인력은 전국 평균 17명이었다.

진선희기자

숲의 정령들이 띄운 새해 메시지

코지 제작 '캄캄 시즌 2'
제주 자연은 존중의 대상
4편의 흑백 영상에 담아

제주 숲이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가 영상 작품에 실렸다. 커뮤니티 아트랩 코지(대표 민경언)가 12월 31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캄캄 시즌 2: 정령들의 편지'다.

'… 정령들의 편지'는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서 진행되었던 코지의 음악극 '캄캄'의 두 번째 작품이다. 올해는 대면 발표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5분 내외씩 4편의 영상으로 만들었다.

이 작품은 사람들이 모두 떠난 캄캄해진 숲에서 매일 밤 펼쳐지는 정령들의 시간을 흑백 화면으로 표현했다. 숲의 정령들은 일 년에 단 한 번 지친 현대인들을 초대해 회복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세계관을 음악, 미술, 연극 등 여러 장르를 더해 풀어냈다.

제작진은 자연에 깃든 정령 역을 맡을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웃들을 추천받거나 직접 섭외했고 두 달간의 연습과 촬영 기간을 거쳤다. 팔순의 무용가 홍신자가 고목의 정령으로 분해 메인 주제곡인 '차를 마셔요'를 낭독하며 울림을 주고 어린이, 고등학생, 귀농 청년, 예술인 등 20여 명의 배우들이 갓난아기와 엄마 정령, 휠체어를 탄 환대의 정령 등으로 출연한다.

코지 대표로 이번 작품의 작사·작곡까지 맡은 민경언 예술감독은 "제주의 자연이 소비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이며, 더 나아가 제주의 정령들이 지구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며 "혐오와 이기주의가 덮치는 팬데믹 상황에서 새해에는 마음과 마음을 열어 세계를 연결하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20년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제작됐다.

진선희기자

'캄캄 시즌 2: 정령들의 편지'. 무용가 홍신자씨가 고목의 정령으로 나온다.

제주 출신 한석홍의 왕실문화재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기증 자료
궁궐 전각 등 온라인으로

제주 출신으로 국내 문화재 사진 개척자이자 1인자로 평가받는 고(故) 한석홍(1940~2015) 작가의 작품이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한석홍 작가가 1980~1990년경 왕실문화재를 촬영한 기증사진을 지난달 28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 올려놓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2019~2020년에 걸쳐 고인이 생전에 촬영한 왕실문화재와 궁궐 전각 사진필름 490여 건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기증품은 1980~1990년 대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신인 궁중유물전시관 등에서 촬영한 것들로 왕실회화, 공예, 천문, 과학 관련 왕실문화재, 궁궐 전각 사진필름 등이 포함됐다. 박물관 측은 이중에서 310여 건을 선별해 디지털화한 작품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앞서 한석홍 선생의 유족들은 2018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1984년 문을 연 박물관 개관 전시 도록 사진 원본을 기증했다. 대를 이어 문화재전문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 한정엽씨 등 유족들이 기증한 자료는 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당시 박물관 내·외부 모습, 암석 등 한석홍 작가가 전시물을 촬영한 사진 65점이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도 공공저작물 개방
6만여 건 무료 이용 가능

제주도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제도인 '공공누리마크'를 부착해 제주 100년 사진 등 가치있는 제주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물 권리 실태 시범조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저작물 개방, 우수 공공저작물 원문 확보 등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제주 100년 사진, 문화재, 방언 등 총 6만4000여건의 제주문화 콘텐츠를 대상으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해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선희기자

갤러리ED 지상전 (4)손일삼의 '제주바다-인상'

형체의 소멸 속 색으로 그리는 제주

그가 해녀를 붙든 계기는 대학원을 졸업하던 무렵 우도에서 만난 풍경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나이 든 해녀가 바다에서 우뭇가사리를 캐내 무겁게 짊어지고 오는 장면을 봤다. 그것은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었다. 노동을 하며 생을 일궈야 하는 사람살이 그 자체였다. 2004년 개인전부터 그는 제주 해녀를 화폭에 품었고 지금에 이른다. 제주대 미술학과 손일삼 교수다.

20년 가까이 해녀를 그려오는 동안 그의 작업은 서서히 바뀌어 왔다. 근래 그의 화면엔 해녀는 있으나 대상의 재현과는 거리가 멀다. 형태가 아닌 색의 표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갤러리 이디의 제주 중견 작가 11인 초대전에 출품한 '제주바다-인상(印象)' 연작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해온 그의 작업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19~2020년 그려진 40호, 50호 크기 유화 작품들로 바다가 마음에 새긴 감성을 색으로 형상화했다. 그의 바다는 초록, 파랑, 노랑, 분홍 등으로 나타난다. 흔히 제주의 거친 환경이나 아픈 역사가 떠오르는 황톳빛이나 회색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단순하게 낭만의 표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사계절 제주 자연이 주는 색감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떠올려보자.

저 멀리 성산일출봉이 떠 있고 인근 바다는 빨간 등대와 대비되며 푸르른 빛깔을 띠었다. 그 아래쪽 바다는 연초록이다. 초록 물결 사이로 노란 빛이 슬쩍 밀려들고 바다 아래 검은 바위가 희미하게 비쳐나며 도저한 색들이 형체를 삼켜버린다. 원거리 일출봉은 최소한의 붓질로 드러냈고 근거리 해녀마저 점이 되었다. 거기에 색으로 그려내는 또 다른 제주가 있다.

그는 '제주바다-인상' 연작에 대해 "인물 자체의 느낌을 담은 작업을 해오다 어느 순간 색이 중요해졌다"면서 "화면의 재구성을 통한 기억 속 바다를 조형화한 작품"이라고 했다.

손 교수는 제주대 미술학과와 한서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스물한 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비오토피아갤러리 3인 초대전,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제주작가 3인전, 제8회 취리히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다.

진선희기자

[신축년(辛丑年):백우(白牛:하얀소) 귀한 흰소의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19와 함께 해오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한해를 지내오신 모든 분들께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 올 한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듯 합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여 하느님과 부처님의 크신 가피력으로 무난무탈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를 잘 보낼수 있는 도움말을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해 명언(名言) 4가지!! 〉

1 모이면 위험하고, 흩어지면 안전하다!! 2 돌아다니면 위험하고, 집콕하면 안전하다!! 3 방심하면 위험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 안전하다!!
4 몸 은 멀리해도 마음만은 더욱 가까이! ♣ 현실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주는 것은 부처님도, 하느님도 아니고, 오직 의료체계와 우리자신뿐입니다!! - 꼭 명심합시다!!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마음가짐 기도발원문 〉

1 그동안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해온 모든 죄업에 대한 참회나 회개를 먼저합시다! 코로나19 부처님이시어! 지구시여! 그동안 지어온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용서 하여 주시옵소서!(1일100회씩 반복)
2 코로나19부처님 이시어! 이제 노여움을 푸시고 해탈의 세계(지구를 벗어나 천상의세계, 광명의 세계, 극락세계)로 나아가시옵소서! (1일 100회씩 반복)

〈 코로나19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관점 〉

1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현재는 매우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먼 미래에 닥쳐올 더 큰 질병재앙에 대한 미리하는 훈련효과 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실험적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상황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닥쳐올 더 큰 상황에 대비해 나아가야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는 앞으로 기본 1,000여명 이상의 확진에 대비하여 병상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2 위기는 기회 입니다! 기존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적응, 개발해 나아가야 합니다! 3 이렇게 급변하는 삶의 패턴에 어떻게 적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과 지혜를 창출해 나아가야 합니다!

♣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1 지금의 상황은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음을 매우 많이 경험하고, 어느덧 '죽음' 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 훌륭한 삶이란, 우리가 사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두를 살리는 최상의 보람있는 일 !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가치있는 일 ! 등에 집중하여 살다가 마친다면 가장 훌륭한 삶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삶의 자세를 본받읍시다! 3 매일같이 사망자,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은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젠 죽음에 대한 인식도 과감하게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4 강한 믿음 (신앙)을 통한 죽음은, 자신이 믿는 신의 세계로 간다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고통이 아니고, 더 좋은곳으로 나아가는 즐거운 여행이 될것입니다! 5 불교에서도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이라 하였고, 육신이 소멸할 뿐! 우리 자신의 근본자성인 불성(佛性)은 생사(生死: 나고, 죽음)가 본래 없다 하셨습니다! 이런 큰 믿음과 깨달음이 있다면, 죽음 또한 즐거움이요, 감사함이요, 당연함이요, 행복일뿐입니다! 6 죽음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억지로 회피할 일도 아닌 해가 지면 다음날 뜨듯이, 자고나면 일어나듯이, 꽃이피면 꽃이 지듯이, 가을이면 낙엽이 지듯이, 그냥 일상이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7 설사 죽음이 오드라도 오로지 이 껍데기 육신이 인연이 다해 소멸될 뿐! 육신안에 깃들어 있던,나의 참자성 (불성-佛性/주인공)은 죽지않고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하리라! 는 굳은 신심으로 죽음을 맞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생사해탈 (生死解脫)이라 했으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 중생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 평소에 염송하면 좋은 금강경사구게(金剛經四句偈)

♣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이 - 우리가 사는 일체의 삶이 ♣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이요 -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이니 - 또한 풀잎에 이슬같고,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갯불 같으니,
♣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하라 - 응당 세상사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바로보라! - 허황된것들을 쫓지말고 참나를 찾아 살아가라 (참다운 진리, 부처님과 하느님과 하나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제주불교 금강선원장 후광(後光)세정(世正)스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석사졸업
✦금강경강의법사
✦명상지도사
✦심리치유사
✦행복한 제주사회만들기 운동본부 대표

♣ 이 문안을 보관하여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순간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시는 제주도와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여러분! 코로나19 방역관계자 여러분!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이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 들이시고 부처님 이십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한마음으로 기도 드립시다!!

행복한제주사회만들기운동본부 · 금강경경전공부도량 · 마음수행도량 · 영가천도도량 제주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연동) 47 3층 ☎064-746-0789